

2023년 06월 0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3편 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25(통359)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27장 1~12절(구약p.785)

1.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7.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8.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9.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10.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11. 하나님의 숨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 말씀선포 / 경건하고 복된 삶

목회자 이며 신학자인 랜디알콘 목사님은 “행복”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행복해지는 8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첫째, 의심과 원망을 버려야 한다, 둘째,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셋째,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조건과 싸우느라 시간과 기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세상에 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며, 특히 사람을 사قم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사랑, 유머, 긍휼, 충절 등

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일곱째, 자신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무언가 더 큰 것을 찾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의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신앙 양심 앞에서 살아갑니다. 욥은 자신이 외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진술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가 욥의 삶에서 참된 경건을 배워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1. 양심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욥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본문 4~6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경건한 삶에 대해 양심 앞에 떳떳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다가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러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인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떳떳하기 위해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함으로 참된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2. 영원한 소망을 지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욥은 불경건한 현실에서 얻은 이익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일 뿐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됨을 강조합니다. 본문 11~22절입니다. “하나님의 숨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준비할 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뜯족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 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이는 반대로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결국엔 승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흥하고 경건한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바울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사는 것에 대해 성도는 전혀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잠깐이요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 또한 시편 37편 1~2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바라며 인내로써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끝까지 경

건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3.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욥은 불]W

-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다고 진술합니다. 또한 환난이 닥쳐올 때 불 경건한 자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 3장 4절에서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고 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경건한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으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가르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회복하고 굳게 세우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길로 행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30(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폐 회 / 주기도문